

남도 오방색에 깃든 치유와 평화

‘이강하:또 다른 세계’ 내달 2일부터 ‘脈 맥’ 연작-미공개작 등 13점 공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많은 한국 구상계 작가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

현실과 자신의 역사적 경험 사이에서 자신만의 작업을 리얼리즘으로 구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동반됐다.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었던 이강하 작가의 고민 역시 다르지 않았다.

1970년부터 남도사람들의 애환과 한국 미술의 정체성에 관심을 두고 작업탐구를 시작했던 이 작가는 1980년 조선대학교 미술학과에 재학하면서 탐구에 중점을 맞췄다. 작업에 대한 고민은 오래갈 수 없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면서 시민군으로 나서게 됐고 그 결과 2년여간 징역수배자로 전국 사찰을 돌며 은둔생활을 하게됐다.

그의 삶에서 가장 불운하고 불운했던

당시 마주했던 전국의 자연풍경과 사찰의 한국 전통 단청무늬, 그리고 남도 오방색의 색채는 이 작가의 지친 심신을 치유함과 동시에 자유와 평화를 상상하게 하고 또 다른 세계로 연결하는 새로운 사상적 통로가 됐다.

오는 2월2일부터 3월23일까지 광주 남구 이강하미술관 이강하: 또 다른 세계 전에서 선보이는 ‘脈 맥’ 연작에는 1980년대의 사회성이 반영됐다.

이 작가는 불교와 샤머니즘에 관심, 그간 연구해 온 전통적 민족정서와 가치, 역사 사상에 대한 근본을 ‘맥’ 연작에 오롯이 담아냈다.

특히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발’로 인해 ‘맥’ 연작은 우리민족 전통의 ‘감춤의 미학’과 더불어 ‘신비스러운 시각 효과’를 구성해내고 있다. ‘발’ 뒤에 불상이나 사천왕, 탈, 인물 등을 섬세하게 그려 극사실적 효과를 내면서 ‘발’을 통해 감추어진 전통문화와 사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강하 작 ‘맥’ 연작 중 ‘의식구조’.

이강하미술관 제공

이러한 회화 방식은 샤머니즘적 내지는 유교적 정서와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고

오랜 시간 캔버스에 달아 붙여, 수행하듯이 그려나가 얻어낸 설득력과 집념의 독

자적인 결과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맥’ 연작 13점 중 그동안 한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 5점도 최초로 공개돼 더욱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이강하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이강하: 또 다른 세계’ 전시를 통해 이강하미술관의 정체성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강하 작가 연구와 소장품의 관리·보존의 중요성을 시민 및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자원 활성화와 소통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개관해 지역을 넘어 국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강하미술관은 1년 중 한번 이 화백의 대표 작품을 시대의 주제 및 흐름에 맞추어 선보이는 소장 작품 전시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지역의 작고 작가 과거 시대적 작품을 통해 ‘과거-현재-미래’의 시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전시회 등을 구현하는 목적을 두는 역할도 이어가고 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아트북을 사용해 문화재들을 탐구하는 교육생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국립광주과학관·박물관 ‘어느 수집가의 초대’ 교육 성료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2023 겨울방학 과학관과 박물관 이야기’ 교육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고 이건희 회장 기증기념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과 연계한 참여형 교육으로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공동으로 운영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년째를 맞는 과학관과 박물관 공동기획 교육프로그램 ‘과학관과 박물관 이야기’는 양 기관의 특색을 살려 주제에 대한 과학원리와 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인기몰이 중이다.

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은 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 ‘브람스’ 작품 속 네온사인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직접 자신만의 네온사인 작품을 만들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물관 프로그램은 문화재 탐구와 아트북 및 페이퍼토이 제작 체험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문화재들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운영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알찬 내용과 수업 진행이 좋아서 즐겁게 공부하고 체험했다”며 “향후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은 교육”이라고 밝혔다. 박상지 기자

“청년예술인들에게 ‘맥’ 이 돼 드리겠습니다”

장호영·류건우 테너듀오 콘서트 내달 4일 오후 ‘예술 맥그라운드’

복합예술공간 예술이 맥그라운드가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 오는 2월4일 오후5시 광주 동구 예술이 맥그라운드에서는 ‘봄이 오는 노래소리(사진)’를 주제로 장호영 테너와 류건우 듀오 콘서트를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렉처콘서트 형태로 진행되며 와인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테너 대 테너’ 듀오 콘서트는 흔치않다. 서로 다른 영역의 높은음이 가진 소리의 파장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예술이 맥그라운드는 테너의 장점과 아름다움에 집중할 수 있는 음악으로 선별했다.

장호영 테너의 이태리 오페라는 남성적으로 단단하고 소리의 파워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레퍼토리는 ‘새벽은 빛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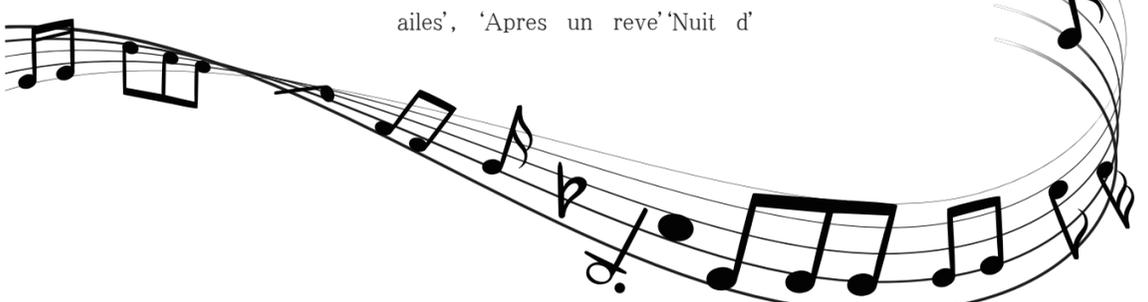
‘Aprile’ ‘Ideale’ ‘Come gentil’ 등이다. 반면, 류건우 테너가 공연할 프랑스 멜로디는 프랑스 언어의 부드러움과 멜로디의 시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주요 레퍼토리는 ‘Si mes vers avaient des ailes’, ‘Après un reve’ ‘Nuit d’

etoiles’, ‘Je te veux’, ‘한국가곡 첫사랑’ 등이다.

공연은 서울대 성악과 출신 소프라노 윤혜진씨의 진행으로 작품에 얽힌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질 예정이다.

한편 복합예술공간 예술이 맥그라운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극인 창작공간인 연극소극장과 미술 전시 갤러리, 그리고 뮤지션들을 위한 콘서트홀과 예술가와 예술애호가들이 함께 공존하는 장소이다. 광주대표 연극단체 푸른연극마을과 소극장 ‘씨어터연바람’을 운영해 온 이당금씨가 예술운동을 해 온 저력으로 지난 2022년 5월 개관했다.

이당금씨는 “모든 장르의 청년예술인을 비롯해 전방위적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펼쳐보이는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들 한다”며 “예술이 맥그라운드는 청년예술가들에게 예술적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일 수 있는 ‘맥’이 되고싶다”고 밝혔다.



각 지역 문화 매력 알릴 ‘4070 기자단’ 공모

문체부, 내달 8일까지 접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각 지역의 문화 매력을 알릴 ‘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을 오는 2월8일까지 공모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방의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장의 특성화된 명품 문화를 개발하고, 국민이 이를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을 신설했다. 40~70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070 기자단은 지역의 문화 지킴이로

고향의 문화 매력을 이야기로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스포츠·여행 등 ‘지역 매력 자원’을 주제로 취재한 뒤 기사를 쓴다. 작성한 기사는 문체부 대표 SNS(누리소통망)와 디지털 ‘K-공감’ 등에 공개한다.

문체부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총 34명을 선정하며, 2월13일에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기자단이 전국에서 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17개 특별·광역 시도 거주자 중만 40~59세인 지원자 1명씩을 ‘4050 기자단’으로, 만 60~79세인 지원자 1명씩을 ‘6070 기자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뉴스스

국립민속박물관 ‘병풍 장황’ 연구 자료집 발간

박물관 소장 병풍 128점 담겨

국립민속박물관은 자료집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병풍 장황(사진)’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박물관 소장 병풍 128점의 장황을 연구한 성과물이 담겼다.

‘장황’은 그림·글씨를 감상하거나 보관할 수 있도록 족자·병풍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주는 형식·형태·기술이다. 병풍의 장황은 서화를 꾸미고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 전체적인 구도나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소다.

민속박물관은 2017년부터 6년여에 걸쳐 소장품을 중심으로 장황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병풍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광학 현미경 조사, 적외선 분광분석 등 과학적 분석과 상태조사를 통해 병풍 그림과 장황의 재질·시기를 파악했다.

민속박물관 소장 병풍은 대부분 자유로운 장황 양식을 갖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의 것들로 확인됐다.

현대로 갈수록 기존의 전통 장황 재료



인 비단이나 능화지를 대신해 비스코스 레이온·디아세이트·나일론과 같은 화학섬유 및 인쇄 양지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문화재 보존처리·복원의 길잡이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상지 기자